

『세계인이 예술하고 싶은 도시

- 내가 나로서 공감받을 수 있는 서울?』

(제9회 서울문화예술포럼 정책리뷰)

『세계인이 예술하고 싶은 도시

- 내가 나로서 공감받을 수 있는 서울?』 (제9회 서울문화예술포럼 정책리뷰)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지난 8월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9회 서울문화예술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어 "Seoul Mix"는 서울문화재단이 "세계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 서울"의 지향점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류의 중심지 서울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이질적인 것들이 자유롭게 섞이는 새로운 창조의 활력의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그 전략 수립을 위해, 포용과 다양성의 도시 암스테르담의 국제문화교류 전략을 소개하고, 국제문화예술 교류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획자와 예술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높아진 한국문화의 위상은 그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핵심 주역들이 전해주는, "예전처럼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대변해 줍니다. 하지만 <국제교류 지원환경, 충분한가?>는 토론에서는 차마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민간 단체의 성공에는 실패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토니상, 6관왕 수상의 주역이 하는 말을 공공지원기관들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K-Pop에 열광하고,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공연티켓이나 열차티켓 사는 단순한 일에서 한국인이 아니어서 하기 힘든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글로벌 도시"를 자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악은 K-콘텐츠의 우물과 같다"고 말하는, 국가무형문화유산

이수자 조차 주민등록번호 없는 외국인이어서 국악 공연 티켓을 직접 사기가 어렵고, 대학교수로서 은퇴 후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시스템이 없다는 현실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은 벌써 예술하기 좋은 도시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는 하기 힘든 도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인도 와서 예술하고 싶어지는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창작 활동에 적합한 비자 시스템과 함께, 그런 행정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먼저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그들이 발신하는 대로 불러주고, 기입할 수 있고, 그들의 정체성과 예술가로서의 보람을 쌓을 수 있게 허락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석자”라는 말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회공동체의 인식 수준이 사회의 행정시스템에 반영됩니다.

“Where are You from?” “당신의 영어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받는, 파랗지 않은 “파란 눈의 이방인”이 아니라, 창작하는 “나”로서 공감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세계의 예술가들이 이끌릴 것입니다. “세계인도 예술하고 싶어 하는 도시 – 서울”은 서울이 세계인들에게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서울 사람과 세계인이 함께 공감하는 곳입니다.

< 목 차 >

- | | |
|----|---|
| 0. | 세계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
| 1. |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열린 도시>, 서울과 암스테르담의 문화교류전략 |
| 2. | 세계로 <서울 예술>이 계속 더 잘 나갈 수 있으려면? |
| 3. | 서울에 <세계 예술>이 계속 더 많이 머무르게 하려면? |
| 4. | 비자 제도 이전에 <이름>의 문제 ... 내가 나로서 공감받는 곳으로 이끌리는 힘 |

0. 세계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지난 8월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9회 서울문화예술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 글로벌 문화리더를 지향하는 서울문화재단이 국제교류사업을 다시 강조하면서 정책수립에 반영할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 것입니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은 “서울문화재단이 작년에 창립 20주년으로 성년이 될 동안 시민이 문화생활 즐기기 좋은 도시, 예술가들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왔다. 사실 그 여정이 최근 주목 받는 K-Art, K-Culture의 성장과 함께 하는 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지 공동위원장(전 국립발레단장)은 국경을 넘어 활동했던 예술가로서 경험 위에서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해외에서 예술을 하며,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창작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외로운 일인지 경험했다. 그때마다 예술가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어디에서든, 자신 있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소중하다” 말했습니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과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 단장의
개회 인사말

서울문화예술포럼 기획위원들의 제안으로 채택된 이번 포럼의 표제어 “Seoul Mix”는 “세계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의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 끝에 채택된 표현입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류의 중심지 서울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이질적인 것들이 자유롭게 섞이는 새로운 창조의 활력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김희정 서울문화예술포럼 기획위원(상명대 문화예술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서울과 암스테르담의 문화정책담당자들이 각자 도시의 국제문화교류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의 바깥과 안에서 뒤섞이는 문화예술 교류의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기획자와 예술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정책제언을 듣는 패널토론이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명 : 제9회 서울문화예술포럼

●일시 : 2025.8.20.(수) 15:00~

●장소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문화재단 유튜브채널 '스팍tv' 생중계)

●주최 : 서울문화재단

●주제 : 서울MIX_세계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로

●행사구성

▷ 사회 : 김희정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예술포럼 기획위원)

▷ 발제①서울 문화예술 국제교류 방향

_ 서명구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

▷ 발제②다양한 창작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암스테르담 예술정책

(Amsterdam Arts and Culture International Strategy 2025-2028)

_ 아라프 아흐마달리 (Araf Ahmadali, 암스테르담시 예술문화국장)

▷ 패널토론①서울 문화예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언

_ 김유철 (라이브러리컴퍼니 본부장)

_ 이정현 (서울뮤직워크 설립자 및 총감독)

_ 장성은 (CINARS(캐나다공연예술마켓) 한국본부장)

▷ 초청공연 “성금련류 가야금 산조”

_ 조세린 (가야금 산조 이수자)

_ 신승균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

▷ 패널토론②서울 내 외국인 예술가의 창작 환경 점검

_ 조세린 (Jocelyn Clark, 가야금 산조 이수자)

_ 마이클 허트 (Michael W. Hurt, 사진작가)

_ 해미 클레멘세비츠 (Rémi Klemensiewicz, 미디어아티스트)

▷ 합동공연

_ 조세린, 신승균, 해미 클레멘세비츠



1.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열린 도시>, 서울과 암스테르담의 문화교류전략

현장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에 앞서 세계 주요 도시들이 국제문화교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서명구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이 『서울 문화예술 국제교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예술하기 좋은 도시에서 세계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로의 역할 확장을 꾀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국제교류 사업의 고민과 의지와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의 국제교류 사업은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연예술 국제교류 기초를 다진 <기반구축기(2004~2009)>, 문화정책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확립한 <네트워크·플랫폼 강화기(2013~2019)>, 코로나 영향으로 잠시 위축된 <제한·축소기(2020~2023)>를 지나왔습니다. 서명구 실장은 서울문화재단이 이제 다시 <회복·재도약기(2024~)>를 준비하며, 글로벌 문화교류 플랫폼으로서 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K-콘텐츠 인기로 기초예술 분야까지 한류의 관심 확장 및 기회 증가, 77건에 달하는 서울시 친선우호 도시들 간 정책교류 수요 증가, 글로벌 도시 도시경쟁력 비교에서 특히 취약한 문화교류분야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¹⁾ 등이 지금 서울문화재단의 국제교류 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환경적 변화라고 파악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국제교류 강화 요구 환경 (출처 : 서명구 실장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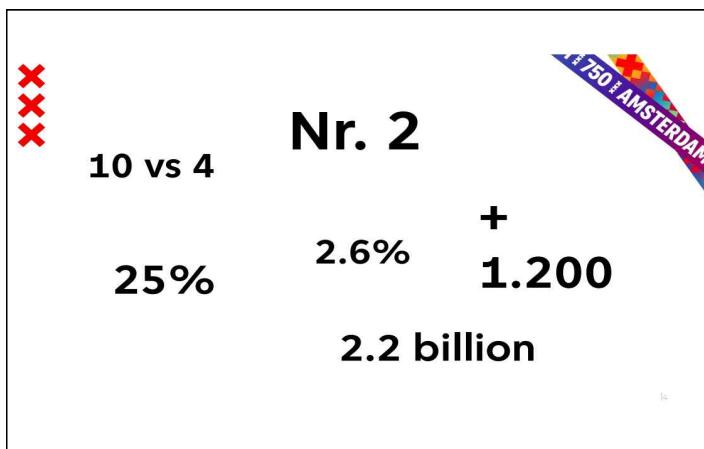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은 작년부터 국제교류활동을 다시 강화했고, 올해는 서울예술상 수상자의 해외 진출 지원, 광복 80주년 계기 중동지역 국가 공연 공동제작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향후 서울문화재단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방향으로서, 서울어터페스타를 국제 예술교류 플랫폼으로 활용, 한중일 청년예술인 교류 확대를 통한 아시아권역 파트너십 강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서 실장은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추진 의지이다. 민간의 예술교류 열차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공공은 레일을 깔겠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문화예술 국제교류 방향”을
발제하는 서명구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

1) 2024년 모리재단 발표 글로벌 도시경쟁력 종합순위는 6위인데, 문화교류분야 순위는 16위

이어서 아라프 아흐마달리(Araf Ahmadali) 암스테르담시청 예술문화국장 『다양한 창작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암스테르담 예술정책 (Amsterdam Arts and Culture International Strategy 2025-2028)』이라는 제목으로 암스테르담의 국제문화교류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암스테르담에는 180개가 넘는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이 함께 살고 있고, 연간 2,500만 명 이상(2025년 목표)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12,000여명의 유학생이 거주하는, 전 세계와 유럽을 잇는 연결 허브 도시입니다. 그는 “문화 접근성(access)”과 문화향유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 도시의 문화정책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핵심기조로 중시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23년에 방문객이 2천만 명이었고, 그 중 약 40%가 방문의 ‘주요 이유’로 문화를 꼽았답니다. 최근에는 “밤 8시에 끝나지 않고...오히려 저녁에 시작되는 문화적 일상”을 고려해 <야간문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약 300만 유로를 투입하여 풍성한 야간문화 전략을 실행하는데, 도시계획, 안전, 보건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해 750주년을 기념하는 도시의 역사 속에서, 늘 ‘이주의 도시’(city of migration)였던 암스테르담은 국내외로 연결되는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이 문화영역 안에서 각자 자기 자리를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말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늘 ‘누구에게나 열린 도시’를 지향해 왔다. 오랫동안 안전한 안식처였고, 지금도 그렇다. 관용적이고, 진보적인 도시다...그래서 암스테르담은 새로운 장르와 작품, 때로는 논쟁적인 시도, 새로운 문화운동이 태동하는 곳이다”고 암스테르담의 매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늘 최대한 ‘열려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도시가 성장하고 번성하는 길은 국제적 맥락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같은 도시에도 이 역동성이 그대로 살아 있길 바란다”는 서울시에 대한 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2. 세계로 <서울 예술>이 계속 더 잘 나갈 수 있으려면?

도시 정책가들의 포부가 담긴 이런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짚어보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희정 교수는 <패널토론①서울 문화예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언>이 한국의 콘텐츠를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핵심 주역들에게서 듣는 아웃바운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경쟁력, 전략, 공공의 지원 역할에 관한 토크라고 소개했습니다.



포럼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
김희정 서울문화예술포럼
기획위원 (상명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초청된 패널들의 근황 소개도 겸하여, 최근 국제 문화예술계에서 달라진 한국 문화의 위상에 관한 이야기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패널로 초대된 장성은 CINARS(캐나다 공연예술마켓) 한국본부장은 아비장아트마켓(Abidjan Art Market)의 작품 선정 국제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는 내년에 프랑스 아비뇽 축제가 한글을 공식 초청 언어(Guest Language)로 지정한 것의 의미를 논평했습니다. 2026년이 한불 수교 140주년이어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겠지만, 그와 별개로 한국 문화가 국제적 문화 흐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아비뇽 축제의 메인 무대로 더 깊숙이 초청되고 주목받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CINARS의 작품 선정 과정에서 한국 작품이 거의 매년 당연하게 포함되는 사례, 최근 주한 캐나다 대사관 사무소의 규모 확대, 그리고 과거와 달리 캐나다인이 직접 사무소 대표로 부임하기 시작한 점 등을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진 구체적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이정현 서울뮤직위크 총감독은 한국의 전통음악과 같은 월드뮤직을 찾아서, 문화적 원형이 살아있는 세계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느끼는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오지는 더 이상 없지만, 어디를 가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의 작은 섬 카보베르데에서 열리는 <아틀란틱 뮤직 엑스포 (Atlantic Music Expo)>²⁾에서도 한국 음악이 최초로 소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김유철 라이브러리컴퍼니 본부장은 전 우란문화재단 프로듀서로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的 초기 단계 제작을 주도했던, 올해 제78회 토니상 6관왕 수상 쾌거의 실질적인 주역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전에 제작 제안을 하려면 설명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달라진 위상을 체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희정 교수는 <국제교류 지원환경, 충분한가?>라는 첫 번째 토론 이슈로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아야 할 입장에서 쓴소리를 크게 못 하는

2)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에서 4월에 4일간 개최되는 아틀란틱 뮤직 엑스포는 대서양 연안의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음악을 중심으로 관련 음악산업 종사자가 참가함. <https://www.atlanticmusicexpo.org/>

패널들을 위해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직접 유약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패널토론①서울 문화예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언>에 초대된 국제문화교류의 주역들
장성은 CINARS 한국본부장, 이정현 서울뮤직워크 총감독, 김유철 라이브러리컴퍼니 본부장

“영수증 처리가 너무 곤란하다. 지원금 담당자가 한국과 포맷이 다른 현지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 진출은 2~3년 전에 준비가 필요한데 한국의 지원제도는 회계연도 1년 단위로 진행되니 어려움이 있다”는 장성은 본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정현 감독은 “내가 직함은 <디렉터>인데 (공공과 일할 때는) <파이터>였다. 그랬더니 잘 안 불러주더라(웃음)...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쓴 호텔비 천만원 정도를 영수증 처리 못해서 자비로 처리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언은 “우리 콘텐츠가 작품은 너무 좋은데 프로모션 할 인력이 없다. 국제교류 기획자를 키워야 한다. 물건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현지 네트워크가 있고, 그 물건이 어디에 맞을지 제대로 알고 유통시킬 줄 아는 기획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조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영수증 처리도 안 되는 행정에 대한 아쉬움 보다는, 이제 물 들어왔으니 노만 저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한류의 국제문화교류를 걱정하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묻어납니다.

<더 잘 나가는 해외 진출은?>이라는 김희정 교수의 두 번째 화두에 대해, 김유철 본부장은 미국 NAMT(National Alliance for Musical Theatre)의 매뉴얼에서 보고 실천한 교훈을 소개했습니다. “민간 단체의 성공에는 실패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각 단계별로 달성을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그가 강조한 지점은 서울문화재단과 여러 공공지원기관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기간 중에는 “알바 안 하는 예술가”를 목표로, 3~6개월 동안 만이라도 창작에 몰두하게 월급제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희정 교수는 이 배우 월급제는 나중에 해외 진출 시 비자 문제 해결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작 쇼케이스 현장에서는 작품에 대한 스케치로도 제작 논의가 시작 가능한데, 지원제도는 처음부터 완성품을 기대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서울에 <세계 예술>이 계속 더 많이 머무르게 하려면?

두 번째 패널토론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서울 내 외국인 예술가의 창작 환경 점검”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두 분이 합을 맞춘 “성금련류 가야금 산조” 공연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최초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야금 산조)인 조세린(Jocelyn Clark) 교수(배재대학교)가 가야금을 연주하고, 신승균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가 장고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김동하는 예술 앞에서 예술가의 국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패널토론에 초청된 조세린(Jocelyn Clark), 마이클 허트(Michael W. Hurt), 해미 클레멘세비츠(Rémi Klemensiewicz)는 모두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예술가들입니다. 이들에게 김희정 교수가 “K-콘텐츠 어떤 매력?”이라는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유산(가야금 산조) 이수자로 지정된 조세린(Jocelyn Clark) 교수는 한중일 3국의 악기와 언어를 모두 잘한다고 합니다. 그에게 특히 국악의 매력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국악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소리다. K-Pop은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비슷한 음악일 뿐이지만, 국악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보지 못할 음악이다. 뿌리 깊은 예술이어서 보호해야 할 것이며, K-콘텐츠의 우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는 미국 알래스카주 출신인데 거기는 원주민의 전통문화가 소실되었다가 이제 다시 복원 중인데, 한국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다시 되찾으면 깊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패널토론②에서 국악의 매력을 설명하는 외국인 최초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조세린 교수

해미 클레멘세비츠 작가는 “(미술전공이면서 음악 씬에서도 활동하는데, 국악인들과 즉흥 연주 등) 한국 젊은 예술가들과 다양한 협업에서 좋은 예술적 영향을 받았다. 한국 예술 씬의 다이나믹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다. 언어를 쓰는 과정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더라”는 그의 말이, 어렵고 미묘한 단어 선택이 한국인 못지 않은 그의 한국어 실력의 배경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반면 패션사진 작가이면서 사회학자인 마이클 허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는 “나라 망신이라며 한국인들은 굳이 말하려고도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는” 한국의 어두운 면, 서브컬쳐를 기록하고 세계에 소개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찍었던 사진첩을 서울패션위크 관계자에게 가지고 갔더니, 외부에 보여주면 안 되겠다고 하더라. 사진에는 담배꽁초 가득한 흥대 앞 사진 등이 있었다. 그들이 나라 망신이라고 생각할 것들이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어두운 면에 관심을 가진다. 영화 “기생충”의 인기가 그것을 대변한다”고 말했습니다.



패널토론②에서 예술인 비자
현실을 얘기하는 해미
클레멘세비츠 작가

이어진 <글로벌 창작환경, 충분한가?>는 본격 토론에서는, 비자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거론되었습니다. 해미 클레멘세비츠 작가는 “한국에서 내가 누리는 기회에 대해 고마워한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며, 비자 연장을 위해 대마도에 나갔다 오는 현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E7(전문가) 비자 발급 조건과 내가 실제로 하는 일이 애매하게 안 맞는다. 프리랜서 예술창작자에게 맞는 비자 유형이 없다. E6는 모델이나 배우로 회사에 취업하면 해결되는데, 소속사를 통해서만 페이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허트 교수는 “인천공항 입국심사관이 (내가 외국인 모델지망생을 찍어준) 멋진 포트폴리오 사진을 보더니, “돈 안 받고 모델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입국을 불허한 사례가 있다. 받은 것은 증명해도 안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며 어이없는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모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서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 키가 작거나 백인이 아닌 사람은 모델로 인정받기 힘들다”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 기준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매우 한국적인 상식,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꼬집었습니다.³⁾



입국심사관의 매우 한국적인
선입견과 일관성 없는
행정기준으로 인해 입국이 불허된
모델지망생들의 사례를 설명하는
マイ클 허트 교수

조세린 교수는 “공연예술 종사자로서 2년마다 무대안전교육증을 받아야 하는데, 시험문제가 전공과 관련도 없고, 외국인들이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말들이어서 너무 힘들다. 꼭 필요한 성희롱 방지 교육도 영어 자막이 없어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김희정 교수는 주한 외국인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제공하는 혜택의 수혜 자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적절한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마지막 키워드 <세계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3) 외국인 예술인 비자 관련 문제점은 “[국가인권위원회 예술홍행비자 이주민 인권실태 결과발표 및 토론회](#)”(2014.12.17.) 자료집, “[예술가와 국경](#)”(백기영, 월간미술 2014년 5월호),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현황과 향후 과제](#)”(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2022.12.30.) 등 참조

해미 클레멘세비츠 작가는 외국인 혼자는 신청할 수 없고 한국인과 팀을 만들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예술창작 지원제도 때문에 작업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설치작업과 음악을 연계한 다원적 창작에서는 기존에 하던 작품에서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하고 싶기도 한데, 이미 나의 창작 계획이 다 완결된 상황에서 한국인 예술가의 이름만 빌릴 수는 없다... 새 작업이 아니고 기존의 내 작업을 발전시키고 싶은 경우는 협업으로는 불가능한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결국 작업방식을 달리해야만 한다"며, "고맙지만 아쉬운" 한국에서의 지원제도의 실상을 전했습니다.

マイケル ハート 教授は "서울은 벌써 예술하기 좋은 도시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는 하기 힘든 도시다." (사진으로 보여준)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 모델인데도 E6 비자를 못 받은 케이스가 있다. 합리적인 비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 비자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조세린 교수도 "대학교 교수로서 정년이 되면 한국에 합법적으로 더 머물 수가 없다. 돈 없고 나이가 많아지면 비자 포인트 시스템에 따라⁴⁾ 머물기가 더 힘들어진다. 국가무형문화유산 이수자여도 마찬가지다"고 말했습니다.マイケル ハート 教授は "외국인에게는 불가능한 게 교포에게는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결국 피가 안 섞인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게 한국의 시스템이다"며,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게 조차 합법적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을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이성으로 소수자를 연구하는 이 사회학자의 목소리에는 한국인의 피도 섞여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장벽이 되고 있음을 이번 포럼에서 놀랍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공연 티켓 사기도 어렵다. 전주소리축제를 가고 싶어도 한국인 지인을 통해서만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KTX와 택시도 못 타는 친구도 많다. 나도 이제 KTX는 타도 SRT는 아직 못 타고 있다"는 조세린 교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지적했듯이 예매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외국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름 입력 공간 등은, 한국 국민에게만 최적화된 방식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 그렇게 무심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한류에 매료되어 몰려오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을 매 순간 좌절시키는 "글로벌 도시"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글로벌하지 못한 채 너무나 한국적인 틀에 갇힌 인식과 한국인들에게만 너무 최적화된 제도가 <세계 예술>이 서울에 좀 더 오래 머물기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국경을 넘으며 예술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는 이번 포럼의 마지막을 장식한 세 사람의 합동공연 무대처럼,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예술가들이, 시스템의 제약도 지극히 한국적인 선입견도 없이, 서로 섞여서 더 신명 나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국악과 전자음악의 협연으로 포럼을 마무리하는 조세린
(가야금 산조 이수자)
신승균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
해미 클레멘세비츠
(미디어아티스트)

4)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접수제 비자> 관련 법무부 사이트 참조 (<https://www.moj.go.kr/moj/187/subview.do>)

4. 비자 제도 이전에 <이름>의 문제 ... 내가 나로서 공감받는 곳으로 이끌리는 힘

공식 행사가 끝나고, 언제나 뒤에서 고갱이를 발견한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뒤풀이의 건배사는 단연 “비자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뒤풀이에 걸맞게 술잔들 위로 자유롭게 풀려나온 이야기는, 비자라는 행정 제도 이전에 <이름>이라는 본질이 그 뒤에 숨어 있는 문제라는 걸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가에게는 너무 중요한, 자기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해미 클레멘세비츠(Rémi Klemensiewicz) 작가의 이름을 프랑스어 발음 방식을 따라서 “래미”가 아니라 “해미”로 발음한다는 아이스브레이킹 화두가 참으로 여러 결로 가지를 쳤습니다. 한국에서 작업하며 기관들이 발간하는 홍보자료에 해미와 래미로 표기된 것이 반반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작업 결과를 동일한 행정 기호 위에 작가의 정체성으로 쌓을 수 없는 문제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조세린 교수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조슬린” 등으로 자기 마음대로 부른다.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마일리지도 못 쌓는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 시스템이 최근 바뀌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것이 중요하는 데, 일관성 있게 찾아지지 않으니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게 그거다”로 자기 동일성을 인정받는 것은 사랑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외국인 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승균 선생도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며 거듭었습니다. “국악에 관심 갖게 된 외국인은 대금을 인터넷에서 뭘로 검색해야 할까? Korean Bamboo Flute, Daegeum, Taegüm...? 해외 초청공연 갔을 때 현지어로 표기된 내 이름과 실제 나를 아무도 매치시키지 못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이름을 내가 발신한 대로 불러주고, 그게 나라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더 정이 가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정체성과 내 일의 보람을 쌓을 수 있게 허락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열린 시스템>이 아닐까요?

자기 정체성의 표상으로서 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과 행정시스템이 받아 적은 코드 간의 불일치의 원인이, 특정 공식언어가 지배하는 시스템의 결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들려주는 차별의 경험은, 우리 인식의 한계가 시스템의 결함을 고치지 않는 원인일 수도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조세린 교수는 아프리카계 외국인이 게스트인 TV 프로그램 예고편에 “파란 눈의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여기 파란 눈은 아무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해미가 들려주는 사례처럼, 프랑스인으로서 “당신의 영어 이름은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한국인이 유럽인들에게서 “니하오”라는 인사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이 들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의 선입견과 본의 아니게 어긋나는 예의 코드는 자기 삶터 안에만 갇혀 사는 사람의 “미지(未知)의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태는 “무지(無知)”로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세상이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씩 극복되고, 결국 “지구인”으로서 넓게 살아가는 자유로움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묻는 것 자체가 나는 너를

이방인으로 본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왜? 나 대전에서 왔어. 흥!”이라고 말하는 조세린 교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행정시스템에 투영된 선입견은 그 사회의 인식 성장 단계를 보여줍니다. 25년을 되돌아 보면 우리는 “문화의 세기”라고 열광하면서 동시에 밀레니엄 버그의 공포 속에서 21세기를 맞았습니다. 그 버그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상식과, 정보 처리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연도 표기에 4자리가 아닌 2자리만 배정했던 기계적 효율성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것은 천공 카드를 쓰던 초기 컴퓨터 시절의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시대에 맞는 사회 인식을 성장시키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천지개벽할 것 같이 떠들었던 “문화의 세기” 원년에 1900년과 2000년을 구별하지 못하는 단순한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세기말적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2000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이름은 꼭 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구시민의 상식이 글로벌 시스템의 상식을 바꿔놔야 진정한 “문화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뒤풀이까지 끝나고 식당 밖에서 이어진 흡연자들의 더 깊은 대화에 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정현 감독이 어쩔 수 없이 개인 카드로 긁었던 많은 지출 건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을까?”라는 말을 깊은 곳에서 담배 연기에 담아 올려 뽑았습니다. 사실 저도 카투사로 근무하면서,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에 찾아온 외국인 참가자들을 지원하면서, 매우 한국적인 공연들이 해외 축제와 극장으로 초청받았을 때 현지 스탭으로 일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것을 나보다 더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뿌듯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외국인과도 인간으로서 연결되는 호감>, <외부자의 시선으로 확인하는 나의 문화 정체성과 자긍심>, 그 자긍심 위에서 <더 넓어지는 긍정적인 내 마음>이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주제넘게 짐작해봤습니다. 나를 긍정하는 마음에서 더 넓어지는 마음은, 자존심을 높이는 소위 “국뽕”과는 다릅니다.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은 남도 긍정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끌립니다. 그 시작은 내가 나로서 상대에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아닐까요?

포럼에서 들은 예술가들의 이야기에 감동 받아서, 저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를 해보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할 “국내 외국인 예술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와 함께,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과 복합적 감정에 대한 연구⁵⁾”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인도 예술하고 싶은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공감받는 곳으로 이끌리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한국문화의 매력을 지속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sea@sfac.or.kr)

※ 이슈페이퍼에 사용된 기사들과 보고서 원본은 <문화+정책 정보서비스> 텔레그램 채널에 수시로 게시됩니다. ► 채널 구독 링크 : <https://t.me/+phcLQTIMWII4Y2U1>

※ 이슈페이퍼 내용은 작성자의 견해일 뿐,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5)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난민, 추방, 실향, 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또 그 속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연대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정체성과 만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이국’의 정취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디아스포라는 공존의 가능성을 성찰하는 의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천 디아스포라 영화제 소개 글 중 발췌)
https://www.diaff.org/kor/addon/10000001/page.asp?page_num=34112

Vol. 2025-8월

『세계인이 예술하고 싶은 도시 _ 내가 나로서 공감받을 수 있는 서울?』

(제9회 서울문화예술포럼 정책리뷰)

발행일: 2025년 8월 28일

발행인: 송형종

발행처: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

기획·집필 :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김해보 전문위원

편집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디자인 :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서울문화재단 블로그
[문화+정책] 바로가기



문화예술 뉴스 스크랩
텔레그램 채널 바로가기

